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원유관세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전공

김 다 슝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원유관세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나희량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전공

김다솜

김다솜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 심 경영학박사 최 순 권 (인)

위 원 지리학박사 이 정 윤 (인)

위 원 경제학박사 나 희 량 (인)

< 목 차 >

제 I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3
제 II 장 GCC 경제현황, 산업다각화정책 및 FTA 현황	5
제 1 절 GCC 경제 현황	5
제 2 절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	8
제 3 절 GCC의 FTA 추진동향	12
제 III 장 한-GCC 교역 및 FTA 추진 현황	18
제 1 절 한-GCC 교역현황	18
제 2 절 한-GCC 산업협력 전략	22
제 3 절 한-GCC FTA 추진현황	24
제 IV 장 한-GCC FTA 경제적 기대 효과	28
제 1 절 검정방법 및 자료	28
1.1. 인과관계 검정의 절차 및 적용	28
1.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29
1.3. 자료	31
제 2 절 검정 결과	32
2.1. 안정성 및 공적분 검정	32
2.2. Granger 인과 관계 검정	35
2.3. 충격반응함수 분석	37
제 V 장 결 론	44

제 1절 연구요약	44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46
국문초록	48
참고문헌	50
부 록	53



< 표 목 차 >

<표 1> GCC 경제개황	6
<표 2> GCC, 한국, 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7
<표 3> GCC의 산업다각화 전략과 중점 프로젝트	10
<표 4> GCC의 FTA 추진동향	13
<표 5> 한국의 對GCC 교역현황	18
<표 6> 한국의 對GCC 수출현황	19
<표 7> 한국의 對GCC 수입현황	20
<표 8> 국가별 원유수입 금액 및 비중	21
<표 9> 한-GCC FTA 추진경과	27
<표 10> 분석 대상 자료요약	32
<표 11> 시계열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	33
<표 12> Johansen 공적분 검정	35
<표 13> 공적분 여부 및 인과관계 검정	36
<표 14> Gramger 인과관계 검정	36
<표 15>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38
<표 16> GCC 수입원유 관세철폐 (원유 가격 2.14%인하 효과) 시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42

< 그림 목 차 >

<그림 1> GCC의 GDP 대비 석유산업 비중	9
<그림 2> 한-GCC 산업 부문별 경제협력 방안	23
<그림 3> 충격반응(GDP)	38
<그림 4> 누적충격반응(GDP)	38
<그림 5> 충격반응(GNI)	39
<그림 6> 누적충격반응(GNI)	39
<그림 7> 충격반응(소비)	39
<그림 8> 누적충격반응(소비)	39
<그림 9> 충격반응(투자)	39
<그림 10> 누적충격반응(투자)	39
<그림 11> 충격반응(수출)	40
<그림 12> 누적충격반응(수출)	40
<그림 13> 충격반응(수입)	40
<그림 14> 누적충격반응(수입)	40
<그림 15> 충격반응(생산자물가)	40
<그림 16> 누적충격반응(생산자물가)	40
<그림 17> 충격반응(소비자물가)	41
<그림 18> 누적충격반응(소비자물가)	41
<그림 19> 관세 철폐의 국내경기 파급 경로	43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GCC FTA: Focused on Oil Tariff Reduction

Da Som Kim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was formed as a regional alliance in 1981 by 6 Arab countries (Saudi Arabia, the UAE, Qatar, Kuwait, Oman and Bahrain) bordering the Gulf in the Middle East with intent to resolve political instability, lay the foundation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address the economic structur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In the early of 2000s, GCC member states recorded average growth rates of over 5% by leveraging the abundant oil reserves, emerging as high-potential consumer markets. To overcome the dependency on crude oil and petroleum industries, GCC states have launched industrial diversification policies and engaged in multiple projects for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At the end of 2013, the total trade volume between Korean and GCC remarkably increased to \$123.5 billion from \$22.2 billion in 2002, which has ranked GCC as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mong economic bloc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ccount for Korea's leading exports to GCC, whereas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are the biggest imports from the bloc. Korea's trade balance with GCC is chronically in deficit with imports being five times greater than exports. In this context, to secure stable energy supply and participate in their industrial diversification policies, FTA with GCC is increasingly needed. Many world economic leaders like China, the US and Japan are in a rush to sign FTAs with the GCC and thus to preempt the market based on stable energy supply and demand and massive oil money, Korea should make more efforts to take initiatives in proceeding with the FTA. Hence, this study analyzed the expected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GCC FTA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Korea-GCC FTA

To see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GCC FTA, we analysed the effect of the oil tariff reduction of economy by Vector Autoregression(VAR)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following the abolishment of the tariff on crude oil imports, GDP, GNI and consumption are expected to grow by 0.211%, 0.389% and 0.237%, respectively. Meanwhile, investment, export and import are estimated to drop by 0.462%, 0.413% and 0.342%, respectively. As for prices, producer prices are to rise by 6.356%p, whereas consumer prices fall by 2.995%p.

In short, the Korea-GCC FTA and resultant abolishment of the tariff on crude oil imports followed by the decline in crude oil prices will result in declining prices whilst macroeconomic indices, viz. GDP, GNI and consumption, will increase exerting positive effects on domestic economic growth. Also,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respond to GCC member states' industrial diversification policies for FTA-based industrial cooperation to diversify the sources of crude oil and natural gas imports for further resource risk management. Korea-GCC FTA would be a WIN-WIN FTA and considered ever more important in terms of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growth potential as future large-scale consumer market and complementary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the two parti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lies in calculating the values based on the analysis of impulse response functions across a total of 4 quarters without analyzing long-term impacts of tariff abolishment on the variation of macroeconomic indices. Due to the nature of VAR model, the result value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number and order of analysis samples, which warrants further studies using larger samples for short, mid and long-term estimation. Moreover, not just crude oil but also other items need be investigated in light of comprehensive effects of the Korea-GCC FTA.

I.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주요 교역권으로 부상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GCC의 경제 구조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한-GCC FTA 체결 시 원유관세 인하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GCC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GCC는 1981년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가 결성한 역내 협력기구로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 구축과 동시에 대외 취약적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GCC는 최종적으로 EU와 같은 단일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각국 간의 교역 확대와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58.5%가 중동지역에 부존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GCC의 확인 매장량은 34%에 달한다. GCC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유가를 바탕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함으로써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균을 웃도는 약 5%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면서 잠재 성장성을 가진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원유를 제외하고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국가 운영의 기본 재원으로 하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GCC는 원유 수출이 총수출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형적인 단일 품목 의존 경제에 속한다. 이들은 경제 전체가 석유라는 단일 자원 상품의 국제 가격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원 의존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GCC는 이러한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다각화를 위하여 석유 산업 이외의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하지만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은 석유산업 의존도 감축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기에는 그 결과가 미미하였고,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는 경제 구조는 오히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 한-GCC 무역 규모는 유가 상승과 현지 경제 활황에 힘입어 총 교역 규모 1,235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제권 기준 총 교역 순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의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고 수출 및 수입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 비례하여 對GCC 무역적자폭 또한 2011년 781억 달러, 2012년 851억 달러, 2013년 8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對GCC 원유 수입 의존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對GCC 교역에 있어 한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5배나 큰 만성적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다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무역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 GCC와의 전략적인 FTA 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 생산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수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한 GCC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GCC 국가들이 석유 관련 산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별로 없는 전형적인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볼 때 기존의 국제 시장에 대한 경쟁의 격화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의 입장에서 GCC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GCC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GCC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GCC와의 FTA 체결 시 한-GCC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한-GCC FTA의 최근 동향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위하여 선행 연구, 정책 연구 기관의 발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對GCC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의 철폐가 국내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ngle과 Granger (1987)의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함수반응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유는 한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 뿐만 아니라 한 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이 각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은 경제 정책 관련 의사 결정에 유용한 예측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측자의 주관을 배제함으로써 전망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지표 제시 및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페트로넷(Petronet)의 2000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GCC FTA를 통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GCC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2장에서는 GCC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자원 경제의 한계에 도달한 GCC의 산업 다각화 정책 및 주요 경쟁국과 GCC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한-GCC 교역 및 분야별 산업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GCC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한-GCC FTA를 통한 원유에 대한 관세 철폐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추정해 보고 경제적 효과의 파급 경로에 대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GCC 경제현황, 산업다각화 정책 및 FTA 현황

제 1절 GCC 경제현황

GCC는 1979년 이란혁명 및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등으로 걸프지역의 정치 외교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1년 5월 25일 걸프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정상들이 GCC 헌장(22개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최초 GCC의 목적은 경제적 협력에 기인하였으나 1991년 걸프 전쟁을 계기로 치안 및 정치, 군사 협력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치, 경제,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결속을 강화한 역내 협력 기구로 발전하였다.

GCC 6개국은 공통적으로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여 세습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해있다. 이들은 1982년에는 통일경제협정(Unified Economic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역내 관세를 통일하였고, 6개국 간의 재화 및 자본 등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2003년부터 5%의 단일 역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공동 시장을 창설하여 GCC 회원국 국민들이 회원국 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 역내 단일 통화를 도입하고 EU와 같은 경제 협력 기구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오만 및 UAE가 이에 반대 의사를 포함함으로써 단일 통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가 단시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GCC의 GDP는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시작된 유가 강세와 산유량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GCC 6개국의 1인당 GDP 평균은 약 4만 달러에 달하며 영토는 한국의 26배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80%에 불과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작은 규모이다<표 1>참조.

GCC의 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추정치)으로 14,846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GDP(11,513억 달러)보다 약 29% 정도 큰 수준이다. 2007년까지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GCC의 규모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을 허용하였다. GCC의 명목 GDP는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 세계 경제규모의 약 2.1%를 차지한다(주원, 안중기, 2012).

<표 1> GCC 경제개황

구분	단위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인구	만명	2,920	877	184	378	309	115
면적	km ²	2,149,690	83,600	11,610	17,820	309,500	760
경제 성장률	%	5.81	4.36	6.24	6.20	4.99	3.40
명목GDP	US 백만 달러	711,049	383,799	192,390	183,242	78,110	30,362
실질GDP	US 백만 달러	497,620	221,651	123,537	96,632	46,013	22,094
1인당GDP	US 달러	25,136	41,691	93,825	56,373	23,569	23,039
소비자 물가상승률	%	2.86	0.66	1.86	3.20	2.94	2.81

자료: KOTRA, 2012년 기준

<표 2>에서 보듯이 GCC의 경제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균 및 한국 평균보다 높은 약 5%이상의 성장을 이어왔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한국이나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GCC, 한국, 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국가/ 년도	사우디아 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한국	세계
2001	0.5	1.4	3.3	0.7	7.5	2.5	7.4	1.8
2002	0.1	2.4	7.1	3.0	2.6	3.6	2.9	2.1
2003	8.3	8.8	3.5	17.3	0.3	6.0	4.9	2.8
2004	8.6	9.6	19.2	10.8	3.4	7.0	3.9	4.2
2005	7.3	4.9	7.5	10.1	4.0	6.8	5.2	3.6
2006	5.6	9.8	26.2	7.5	5.5	6.5	5.5	4.1
2007	6.0	3.2	18.0	6.0	6.8	8.3	2.8	4.0
2008	8.4	3.2	17.7	2.5	12.8	6.2	0.7	1.5
2009	1.8	-4.8	12.0	-7.1	1.1	2.5	6.5	-2.1
2010	7.4	1.7	16.7	-2.4	5.6	4.3	3.7	4.1
2011	8.6	3.9	14.8	6.3	4.5	2.1	2.3	2.8
2012	5.8	4.4	2.6	6.2	5.0	3.4	3.0	2.4
평균	5.7	4.0	12.4	5.1	4.9	4.9	4.1	2.6

자료: World Bank

GCC의 경제성장은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증가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 들어서며 달러 강세, 셰일 가스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산유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원유 가격의 하락 안정세는 당분간 GCC 국가의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GCC 시장의 경제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황주성(2006)은 GCC 내에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따른 GCC의 결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CC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GCC 회원국간 정치적·경제

적 관계, GCC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그리고 GCC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논하였다. 김종도, 장권 (2012)은 GCC회원국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중동 경제를 견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GCC의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GCC 경제협정 내용들의 주요 사항을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對GCC와의 FTA 전망을 예상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중관(2010)은 GCC의 역내 협력 내용과 각국의 경제 발전 정책을 평가하면서, GCC 경제에 대한 전망과 대외 진출 확대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동 산유국 정치, 경제 체제를 파악하고, 한국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창모(2007)는 기존의 국제시장에 대한 경쟁의 격화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의 입장에서 GCC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상정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이처럼 GCC는 막대한 자원을 갖춘 거대 소비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외부 시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GCC의 경제 현황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GCC와의 전략적 FTA 체결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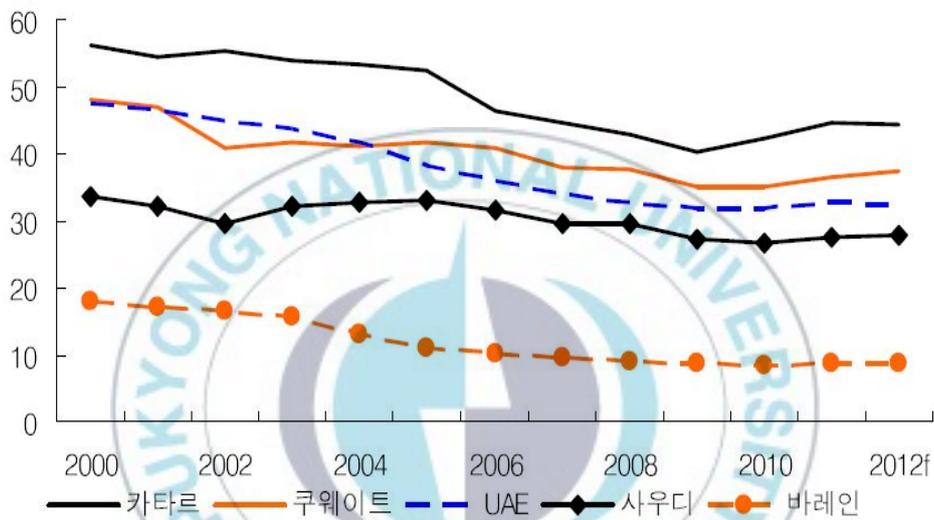
제 2절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

GCC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40%,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25%를 차지하고 있으며 GCC 6개국 중 4개국이 OPEC 소속으로 이들 4개국의 생산량은 OPEC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범위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바레인을 제외한 GCC 경제는 GDP의 30~50%를 석유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유가 상승은 석유를 국가 기본 재원으로 삼고 있는 GCC의 석유 산업 비중을 더욱 높이고 비석유분야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 의존적인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경험했던 전형적인 ‘자원의 저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

장은 오히려 둔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자본집약적인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비석유산업에 대한 낮은 투자율로 나타나고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하는 등 지속적인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GCC의 GDP 대비 석유산업 비중



자료 : IIF, KB경영정보리포트 2012-09호(2012) 재인용

GCC는 국가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가 유가에 따라 급격하게 등락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들 국가는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관광 및 기술 집약적 산업에 투자하고 민간 투자의 적극적 유도 및 자국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 3>은 GCC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각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제조업 및 금융업, 서비스업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GCC의 산업 대부분은 민간 산업 육성 저하 및 투자의 저하를 불러일으켰으며 10%를 웃도는 높은 실업률은 GCC 산업다각화 정책의 진전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표 3> GCC의 산업다각화 전략과 중점 프로젝트

국가	중점 육성 분야	전략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나프타 공장, 플라스틱 단지), 자동차부품, 의료, 교육, 금융, SOC, 건설자재	-5대 산업클러스터(자동차 및 부품, 금속 가공, 플라스틱 및 포장, 가전제품, 태양열) 개발 -9차 개발계획 예산 51% 교육 분야 투자 -5대 신도시 건설
UAE	(아부다비) 석유화학, 금속, 의료, 관광, 금융,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국부펀드(ADIA)해외 투자 -마스다르 신도시 (Masdar City)건설 -원전 건설
	(두바이) 관광, 건설, 의료, SOC, 문화, 교육	-지식 빌리지 (Knowledge Village), 미디어시티, 인터넷시티 등 각종 자유무역지대 확장
카타르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2022 FIFA월드컵 개최를 위한 건설투자 -교육 도시 (Education City) 확대 -금융센터, 투자자유지대 설립 -가스전 개발, 돌핀(Dolphin) 프로젝트
쿠웨이트	석유화학, 건설 SOC, 관광,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미디어시티(Media City), 실크시티(Silk City)등 건설 -항만 등 각종 인프라 확대
오만	SOC, 산업단지 건설	-소하르(Sohar) 산업단지건설 -인프라 확대
바레인	금융, 알루미늄 수출	-역외 금융 서비스 확대

자료: 주동주 외(2012), 「중동 GCC 산업다각화전략과 한국의 협력」

GCC 경제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의 안정적 유지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GCC 회원국 별 경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석유 이외의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보, IT산업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에 투자하며 해외 투자 자본 및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 분쟁 및 자본 부족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

져있는 데 반해, GCC는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오일 머니를 축적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CC의 석유산업의존 경제 형태 탈피 변화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산업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의 금융업, UAE 두바이의 서비스업,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산업이 주변국에 새로운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산업다각화의 성과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GCC가 산업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의 침체, 유가의 하락 안정화, 녹색 경제의 확산 및 거대 경제 불려화 등의 대외 환경변화는 중동 경제의 새로운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GCC는 석유의존 경제의 탈피를 위한 기본 자원 마련을 위하여 여전히 석유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석유 가격은 각종 국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석유 수출이 불안정해지면 산업다각화의 속도와 방향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CC 시장의 석유 의존 구조 및 산업다각화에 따른 신흥 거대시장으로서의 GCC에 대하여 조명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GCC 산업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박복영, 박철영(2007)은 중동 산유국들은 현재 원유, 가스 수출을 제외하면 국부 창출 원천이 없는 상황으로, 화석연료 고갈 또는 대체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구축이 절실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GCC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적자본의 부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조업 기반의 취약 등이 여전히 다각화 진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동주·김계환·민혁기·민영진·빙현지(2012)는 GCC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 주목하고, 특히 국가별, 산업분야별 다각화 정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對GCC 산업협력 전략을 모색하였다. 혁동(2012)은 현재 GCC가 자원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존의 산업다각화 추진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서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기업 간 연계를 주도해 추진력과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할 것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기업은 중동의 전략적 투자 대상인 석유화학 산업, 산업다각화, 농업 부문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인구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할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제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GCC의 산업다각화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산업다각화를 통한 석유 산업을 대신 할 수 있는 미래의 신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GCC의 시행 사업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비스업, 금융업 등 비석유 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인 석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천하고 국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GCC의 노력이 필요하다.

GCC가 직면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산업다각화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GCC 시장의 산업 다각화 정책이 GCC 교역국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과 진출 기회를 주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은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에 발맞추어 재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3절 GCC의 FTA 추진동향

세계적으로 FTA 및 경제 블록화과 가속화되고 글로벌 교역 및 투자의 확대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동 및 후발 성장 국가의 FTA 및 경제 블록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이전부터 지역 내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다수의 경제 협력 체제가 결성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GCC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동 지역의 경제 통합이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석유 산업을 제외한 역내 국가의 산업 발전 수준이 낮고 지역 간의 교역 상품이 소수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GCC는 경제 협력을 위하여 상호간 특혜를 제공하고 EU와 같은 경제통합체로의 지속적인 발돋움을 위하여 노력을 기하고 있다. GCC는 당초 전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모두 추진했지만 역내 육성 산업 보호 및 금융 위기, 관습 및 제도의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6개 회원국간 견해 차이 등의 문제로 최근 FTA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이들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을 기회 삼아 GCC의 기체결된 FTA의 효과 및 협상 과정에 있는 경쟁국들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보다 우리 측에 유리한 FTA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GCC FTA는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GCC 시장을 개방하고 GCC 시장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도 동시에 초점을 맞추어 GCC 내에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GCC는 개방 성향이 강한 싱가포르, EFTA, 뉴질랜드 등과의 FTA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과의 FTA는 협상은 진행이 매우 더딘 편이다. 또한 경제대국인 EU와는 EU측의 인권 문제 제기로 협상이 중단 후 재개된 상태이며, 미국과는 바레인과 오만이 개별국 차원의 FTA를 체결한 이후로 GCC는 단일 국가별로 FTA 체결을 지양하고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이 경우 GCC와의 FTA 체결을 위하여 각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FTA 진척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표 4> GCC의 FTA 추진동향

국가(블록)별	추진동향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1.31 최종 협상 타결됐으며, 2008년 말 각국이 최종 서명 - GCC의 실질적인 최초 FTA로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포함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2월 제1차 협상개시, 2008.4.24. 5차 협상 - 2009.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공식 서명 - 추가협정에서 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와의 농산물 거래를 위해 자유 무역지역 설정
레바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바논과는 2004.5.11. FTA를 체결해 2006.7월부터 발효 - 상품 분야에 국한된 FTA로서 Arab League하의 GAFTA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음.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협력협정 체결 후 90년 협상 개시(10년간 진전 없음) - 2002.3월 협상재개, 2004.1월까지 8차례 협상 - 2004년 상품분야 타결(GCC관세동맹 이후) - 2008년 초, 대부분 합의됐으나 서비스 및 정부조달분야의 일부 미합의된 상태. 특히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최종 타결 난망 - 2013년 2월, 잠정 유예 중이나 협정의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비공식적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7월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 2005.4월 협상개시, 2006년 말까지 4차례 협상 실시 - 2007.11월 중 5차 협상 - 2012.1월 중정상 및 GCC 사무총장간 재협상 추진 협의 - 2013년 내에 최종 합의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9월 협상개시, 2차 협상 완료, 상품분야는 일괄협상, 서비스 분야는 개별협상 - 2008년 최종안 마련했으나, 현재 추가 진행사항 없음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투자, 산업개발, 에너지 등 전방 위 상호협력 추진 - 2004.8월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 2006년까지 3차례 협상개최 - 2006.3.21~22일 리야드에서 개최 - 2008.9.9~10일 리야드에서 개최 - 델리에서 협상이 개최되기로 결정되었으나 협상일자 미정 - 현재 인도 측에서 FTA 체결 촉구 중으로 2011년 2월 사우디 사절단 인도 방문 등이 추진 됐으나 현재 체결 미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12월부터 협상 개시 - 2009년까지 4차 협상 실시 이후 담보상태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례의 협상을 통해, 2011.10월 최종 협상이 타결됐었으며 2013년 4월 12개월 이내 비준을 목표로 함을 발표.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민간 부문 교역 및 투자 확대 추진 - 최초 협상은 2011. 7. 11~12일 오만 살랄라에서 개최 - 무역, 투자, 경제 및 개발 협력, 교육, 문화, 국제문제 상호협력 등에 초점을 맞춘 ASEAN-GCC 2개년 계획(2010~2012)을 시행했으며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함 - FTA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 중
MERCOSUR 파키스탄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별로 FTA 초안에 서명하고 협상 진행 중
요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C와 협상 중

자료: GCC 사무국 및 기타 언론발표뉴스 종합 정리, KOTRA, 2014년 기준

지난 10여 년간 GCC의 대외경제 관계에 있어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과 GCC와의 관계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화되는 경제 상황 아래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 4개국 보다 앞서 GCC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GCC와 주요 경쟁국간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은 과거 FTA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해 부시행정부 이후 자유무역 추진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GCC내에서는 오만과 바레인이 미국과 개별 FTA를 체결하였으며 바레인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오만과의 FTA는 짧은 기간 내에 협상을 종결하여 매우 모범적인 FTA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FTA는 GCC 전체를 단일 경제블록으로 하여 FTA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진행됨으로써 GCC의 행보에도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 GCC의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와 보일러, 전자기기 등의 소비재이다. 미국에 있어 GCC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걸프지역 안보 강화 및 군사 협력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EU의 경우에는 1988년부터 GCC와 FTA 협상을 추진해 2001년에 상품 교역 분야의 협상을 부분적으로 타결하였다. 이후 GCC가 단일경제 블록으로서 일괄적인 FTA 체결을 채택 하면서 두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년이 지나도록 한-EU FTA가 결말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6개국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내부 의견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인권 문제 또한 FTA를 체결을 늦추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EU는 GCC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對GCC 주요 수입제품은 보일러, 원자로, 전기기기, 자동차이며, 주요 수출 제품은 에너지 자원이 주를 이룬다.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정치, 경제, 외교적 영향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

하여 적극적으로 FTA에 체결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있어서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및 미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대상으로 GCC와의 FTA 추진을 강력히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GCC 양자 간 교역규모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GCC와 2004년 7월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중국은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안보를 협력의 핵심 사항으로 두고 GCC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GCC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GCC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에너지 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보일러와 기계류, 의류 등이다. GCC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GCC의 각종 플랜트 공사 등에도 진출하면서 GCC FTA 체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매우 높다. 이렇듯 4개국 모두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GCC 시장의 효과적 선점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GCC와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GCC와의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GCC의 FTA 추진 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배희연(2004)은 그 동안의 GCC 경제통합과정에서 지켜보았듯이, 신속한 GCC내 경제통합과 역외 FTA 체결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였다. 그 근본적 배경에는 각국의 정치·경제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데다 정책적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할 GCC가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으며 GCC는 성공적인 FTA 체결을 위해 법률분야 개편 및 제도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주동주·김학기·이진면(2006)은 GCC와의 FTA 추진에 대한 느슨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경쟁국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우리도 GCC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용석·허진원·김종석·이영희(2006)는 세계 주요 열강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GCC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에도 GCC와의 조속한 FTA 추진이 필

요한 상태이며, 현재의 GCC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GCC와의 FTA 조기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외교적 교류 확대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논하였다. 박복영(2004)은 중국과 GCC간 FTA가 체결되면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한국의 對중동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플랜트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의 對중동 석유수입량이 급증하면, 중동지역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안정적 원유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안정적 원유 확보를 위한 중동지역과의 에너지협력 강화 및 정치.외교적 유대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박복영·황중성·박철영(2006)은 4개국(미국, EU, 일본, 중국)이 자국의 상황이나 걸프지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따라 각자 고유한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지역과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수단을 발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기업의 진출을 위해 우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걸프지역의 필요를 감안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하였다. 박영민(2007)은 유가의 상승과 함께 확대되는 對GCC 무역적자를 경계하고 보다 적극적인 중동 시장 진출로 이를 상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고유가로 인한 GCC의 오일머니 유입은 한국에게 '위협'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더욱이 GCC와 우리나라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교역 규모 및 민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국은 현재의 GCC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GCC와의 FTA 조기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GCC와의 FTA의 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Ⅲ 한-GCC 교역 및 FTA 추진 현황

제 1절 한-GCC 교역현황

GCC는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으로 떠올랐다. 2013년 경제권 기준 총 수출입 양으로 볼 때 2위를 차지할 만큼 과거에 비하여 양측 간의 교역은 수입과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표 5>를 참조해서 보면 2013년 말 기준 한-GCC 총 교역 규모는 2002년 222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235억 달러로 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입이 수출의 5배를 넘어서는 만성적자무역의 형태를 지속함으로써 양자간 무역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5> 한국의 對GCC 교역현황

(백만 달러, %)

년도/구분	수출 금액	수출증가율 (전년대비)	수입금액	수입증가율 (전년대비)	수지
2002	4,023	-	18,215	-	-14,192
2003	4,424	10.0	23,929	31.4	-19,505
2004	5,179	17.1	29,334	22.6	-24,155
2005	6,228	20.3	41,713	42.2	-35,485
2006	7,774	24.8	54,071	29.6	-46,298
2007	10,944	40.8	55,154	2.0	-44,210
2008	15,034	37.4	85,521	55.1	-70,486
2009	11,702	-22.2	49,867	-41.7	-38,166
2010	12,503	6.9	66,441	33.2	-53,938
2011	17,271	38.1	95,460	43.7	-78,189
2012	19,540	13.1	104,732	9.7	-85,191
2013	17,791	-9.0	105,769	1.0	-87,978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6>, <표 7>에서 보듯이 한국은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등 제조업의 비중이 큰 반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수출에 의존하는 GCC 경제는 전체적으로 광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원을 수입 가공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한국과 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GCC의 교역 구조에서도 그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 한국의 對GCC 수출현황

(억 달러, %)

순번	품목명	2013년			2014년 (1~9월)		
		수출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비중	수출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비중
1	자동차	47.0	5.6	26.4	38.4	16.7	26.4
2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6.2	86.5	3.5	9.2	95.6	6.3
3	전선	5.8	1.9	3.3	5.6	38.6	3.9
4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8.4	-5.0	4.7	5.6	-7.9	3.9
5	공기 조절기 및 냉난방기	5.1	-56.9	2.9	4.9	14.9	3.4
6	무선통신기기	7.6	3.4	4.3	4.9	16.7	3.4
7	건설광산기계	5.8	3.4	3.3	4.8	10.7	3.3
8	석유화학합성원료	3.9	194.2	2.2	4.1	48.2	2.8
9	영상기기	3.4	0.8	1.9	4.0	62.2	2.8
10	기타	84.7	-0.2	47.5	63.9	-0.02	43.8
총 계		177.9	-9.0	100.0	145.4	11.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7> 한국의 對GCC 수입현황

(억 달러, %)

순번	품목명	2013년			2014년 (1~9월)		
		수입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비중	수입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비중
1	원유	707.1	-4.4	66.9	535.2	4.2	68.0
2	천연가스	160.4	17.5	15.2	118.4	-4.2	15.0
3	석유제품	119.6	9.9	11.3	83.8	-4.0	10.6
4	LPG	40.5	19.6	3.8	25.0	-17.6	3.2
5	알루미늄	8.2	12.5	0.8	8.2	43.6	1.0
6	정밀화학원료	3.3	-8.3	0.3	2.8	11.8	0.4
7	석유화학합성원료	4.0	-3.5	0.4	2.8	-8.5	0.4
8	기타석유화학제품	4.8	8.9	0.5	2.2	-26.4	0.3
9	동제품	2.8	-11.5	0.3	2.1	-2.3	0.3
10	기타	7.0	0.2	0.5	6.8	0.3	0.8
	총 계	1,057.7	1.0	100.0	787.3	1.4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처럼, 양측의 산업 구조 및 교역 품목이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농업 등 민감한 품목도 상대적으로 적어 FTA의 조기 체결 및 경제적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GCC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70%에 해당하며 <표 8>을 참고로 볼 때 GCC 6개국 중 4개국이 국가별 원유 수입 금액 및 비중의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동산 원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석유회사와 장기 원유 구매 계약 체결 등으로 그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의 불안한 지역적 정세 및 지나칠 정도로 높은 對GCC 원유 수입 의존

도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표 8> 국가별 원유수입 금액 및 비중

(억 달러, %)

순 위	국가명	2013년		2014년(1월~0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사우디아라비아	330.7	33.29	251.0	33.58
2	쿠웨이트	155.4	15.65	110.7	14.81
3	UAE	125.0	12.59	90.1	12.05
4	카타르	92.6	9.33	77.7	10.39
5	이라크	92.3	9.29	50.6	6.78
6	이란	51.3	5.17	36.8	4.92
7	러시아연방	43.3	4.35	36.5	4.88
8	영국	23.1	2.33	23.0	3.08
9	호주	17.5	1.76	15.6	2.08
10	인도네시아	12.2	1.23	5.8	0.78
11	기타	49.9	5.01	49.7	6.65
총 계		993.3	100.0	747.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GCC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GCC간 무역 불균형의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한국과 GCC와의 FTA 추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조속한 대책 논의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제 2절 한-GCC 산업협력 전략

GCC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며 우리 기업에 건설 및 플랜트 수주하고 있는 대표적 교역 파트너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고유가 추세의 지속으로 인하여 GCC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면서 석유산업 중심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여 에너지 자원 고갈 및 각종 대체에너지 개발로 인해 축소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GCC는 축적된 오일 머니를 본격적으로 플랜트 건설, 사회적 인프라 확충, 제조업 기반 확충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속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GCC 교역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對GCC 수출도 큰 폭의 신장세를 지속중으로 한-GCC FTA 체결을 통해 GCC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GCC의 경제는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은 편이지만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각 분야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GCC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산업 협력 및 교류의 잠재성이 매우 높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과 광업 중심의 GCC는 FTA 체결에 있어서도 타 FTA에 비해 민감한 요소들이 작아 FTA 체결 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유럽산 원유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정부에서도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도입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서로의 관계 강화를 긴밀하게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일본이나 신흥 개발국인 중국, 인도 등 에너지의 수요가 큰 나라들이 앞 다투어 GCC와의 FTA를 진행 중에 있어 FTA 체결을 통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동 시장 진출 기반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FTA 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GCC와의 산업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GCC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 수출처이자 건설 시공 수주처로서 매우 단편적인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진출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GCC의 자금력 및 잠재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력 및 산업 경쟁력이 융합된다면 상호간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GCC 산업 부문별 경제협력 방안



자료: 김태황(2013)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에너지 자원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동의 정치적, 경제

잠재 불안 요소를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 수입과 유럽산 원유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안 요소가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여전히 GCC에 편중된 에너지 자원 수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GCC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과 투자 확대 및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증가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GCC와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하여 지역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하다. 한국과 GCC와의 교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비하여 GCC에 대한 정치, 문화, 경제 등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전문가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GCC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진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역 전문가의 양성은 양국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GCC 진출에 대한 노하우 축적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GCC가 세계 에너지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인지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의 GCC와의 산업 협력에 접근이 필요하며, 축적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프로젝트와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투자의 활성화로 제2의 경제 부흥기를 맞고 있는 GCC와의 통상 관계 유대 강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제 3절 한-GCC FTA 추진현황

제 2차 이라크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각국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소비 시장 선점을 위하여 GCC와 협력을 강력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GCC와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 7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3회의 공식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외교통상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08년 7월에 서

울에서 개최된 한-GCC FTA 제 1차 협상에서는 우리 측 정부 대표단 80여명과 GCC측은 「아흐마드 아헨 (Ahmad Ahan)」 카타르 대표단 단장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한-GCC FTA가 상호 교역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1차 협상에서는 5개 분과(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협상 조기타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양허안(관세철폐시간표)을 금년 9월말에 교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양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을 차기 회의 전까지 작성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2008).

2009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 2차 회담에서는 기 교환한 상품양허초안에 대한 양허개선요구 리스트를 교환하였으며, 추후 이를 토대로 상품양허안을 개선하여 제3차 협상 전까지 개선된 양허안을 교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서비스 및 정부조달 분야의 양허초안을 차기 협상 전까지 교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한 한-GCC FTA가 양측간의 교역 증진과 경제협력 강화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2008).

2009년 7월 개최된 제 3차 협상에서는 5개 분과(상품, 서비스·투자·에너지협력,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협정문의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모색하였다. 사전에 교환된 상품 양허수정안, 서비스 양허안 및 정부조달 양허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정부조달, 경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양측입장의 조율이 더 필요한 원산지, 서비스 분과의 경우 10월말에 협상을 개최하여 진전을 모색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4차 협상은 연내 리야드에서 개최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 2009).

하지만 2010년 3월 GCC 측에서 자동차 관세철폐관련 내부입장 정리에 따른 모든 FTA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상호 간 주요 쟁점 현황은 우리 측에

서는 對GCC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 철강제품 등의 조기 관세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GCC는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FTA에 불리한 선례를 남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산업 등 역내 산업 저해의 요인을 들어 양허제외 입장을 견지하였다.

2010년 이후 한-GCC FTA 협상에는 진척이 없이 지속되다가 지난 2013년 한-아랍연맹 사무국 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잇달아 2014년에는 제69차 UN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었던 윤병세 외교장관이 GCC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 측은 최대 에너지원의 수입국이자 최대 해외 건설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협력을 교육, 환경, ICT, 금융, 방산, 신재생에너지, 원전, 문화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건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강조한 데 대해 GCC측은 공감을 표하고 기존 대형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도(SMEs) 적극 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회담 직후, 윤 장관은 알-자야니 GCC 사무총장과 「한-GCC 전략대화 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중동 지역 최대 경제협력파트너와의 정례적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GCC 진출 측면지원, GCC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제 3국 공동 진출 등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외교부, 2014).

GCC는 석유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의 구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FTA 체결에 대한 의지가 높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GCC는 FTA를 통한 역내 산업에 대한 타격에 대하여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 FTA 체결 통한 GCC 교역 확대와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6개국의 내부적인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GCC의 다변화하는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GCC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표 9> 한-GCC FTA 추진경과

일자	주요 경과
2007.3월	대통령 중동 방문 시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에 양측 공감대 형성
2007.4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GCC 사무총장 앞 서한 송부
2007.7월	대외 경제장관회의 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확인
2007.11월	한-GCC FTA 예비협의 개최(리야드)
2008.1월	한-GCC FTA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08.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 공식 의결
2008.4월	제 1차 협상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리야드)
2008.7월	제 1차 협상 개최(서울)
2009.2월	협상준비를 위한 수석대표 간 협의(리야드)
2009.3월	제 2차 협상 개최(리야드)
2009.7월	제 3차 협상 개최(서울)
2009.11월	한-GCC FTA 원산지/서비스 회기 간 회의(두바이)
2010.6월	압둘라호만 알-아티야 GCC 사무총장 방문
2013.9월	한-아랍연맹 사무국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최초의 정례 대화 채널 구축)
2014.9월	한-GCC 전략협력 양해각서 체결(뉴욕)

자료: 외교부 및 뉴스 보도자료

IV.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

제 1절 검정방법 및 자료

1. 1. 인과관계 검정의 절차 및 적용

원유수입가격의 하락과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 우리는 Engle과 Granger (1987)의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이용한 Granger 검정을 실시한다.¹⁾ 일반적으로 Granger 검정의 계량경제학적 특성을 기초로 시계열 간 인과관계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개의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Augmented Dickey and Fuller(ADF) 단위근 검정(1981)을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자연로그로 치환한 각 변수들의 적분차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위의 ADF 단위근 검정에서 시계열이 1차 적분 즉, $I(1)$ 일 경우 벡터자기회귀 모형과 관련하여 Johansen (1988, 1991), Johansen과 Juselius (1990)의 제안에 따른 시계열 간 공적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두 번째 단계에서 공적분 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시차를 가진 벡터오차수정항을 포함시킨 정 규화된 Granger-type의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다(Johansen, 1991).

1) VAR 모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Y변수를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한 변수로 Y의 시차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X변수가 Y변수를 인과한다면(Granger-causes) X의 시차변수는 Y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Granger(1969, 1980)는 이러한 확률적 인과관계를 체계화시켰다. 또한 Engle과 Granger은 X변수의 시계열과 Y변수의 시계열이 개별적으로 1차 적분, 즉 $I(1)$ 되어 있고 동시에 공적분(cointegrating) 되어 있다면 두 변수 간에 적어도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공적분되어 있는 장기 시계열의 벡터오차수정 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ngle과 Granger의 이론은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형식을 통해 공적분된 $I(1)$ 시계열을 인과관계의 검정을 위해 어떻게 모형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벡터자기회귀 모형은 수준(level)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단기적 변동성을 내포한 $I(0)$ 의 벡터오차수정항을 포함한 1차 차분의 형식으로도 구축될 수 있다. 만약 시계열이 1차 적분되지만 동시에 공적분되어 있지 않다면 인과관계에 대한 검정은 수준 변수의 시계열을 안정적인(stationary) 시계열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서는 먼저 단위근 검정과 시계열의 적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성 검정 및 공적분 검정을 위해 각각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DF 단위근 검정 및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각 시계열의 적분 차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로그로 치환된 시계열의 수준 변수와 1차 차분된 변수에 대해 ADF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이 검정의 결과를 기초로 수준 변수 및 1차 차분 변수의 단위근 존재에 대한 귀무가설(단위근이 존재한다.)의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적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ohansen 최우도 검정(Johansen maximum likelihood procedure)을 활용한다.

1. 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위의 Johansen 공적분 검정의 결과를 기초로 원유수입가격의 인하 및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Granger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만약 X, Y 시계열이 1차 적분되어 있고 동시에 공적분되어 있다면 시계열을 수준 변수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Method I

$$X_t = \alpha + \sum_{i=1}^m \beta_i X_{t-i} + \sum_{j=1}^n \gamma_j Y_{t-j} + u_t \quad (1)$$

$$Y_t = a + \sum_{i=1}^q b_i Y_{t-i} + \sum_{j=1}^r c_j X_{t-j} + v_t \quad (2)$$

u_t 와 v_t 는 잔차항으로 0을 평균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다음으로 시계열 간 공적분되어 있는 경우 벡터오차수정항을 포함시킨 1차 차분된 시계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회귀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hosh(2006)이 제안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 방법을 활용한다.

Method II

$$\Delta X_t = \alpha + \sum_{i=1}^m \beta_i \Delta X_{t-i} + \sum_{j=1}^n \gamma_j \Delta Y_{t-j} + \delta ECT_{t-1} + u_t \quad (3)$$

$$\Delta Y_t = a + \sum_{i=1}^q b_i \Delta Y_{t-i} + \sum_{j=1}^r c_j \Delta X_{t-j} + d ECT_{t-1} + v_t \quad (4)$$

u_t 와 v_t 는 잔차항으로 0을 평균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세 번째로 만약 시계열이 각각 1차 적분되어 있지만 시계열 간 공적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차분된 시계열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Method III

$$\Delta X_t = \alpha + \sum_{i=1}^m \beta_i \Delta X_{t-i} + \sum_{j=1}^n \gamma_j \Delta Y_{t-j} + u_t \quad (5)$$

$$\Delta Y_t = a + \sum_{i=1}^q b_i \Delta Y_{t-i} + \sum_{j=1}^r c_j \Delta X_{t-j} + v_t \quad (6)$$

u_t 와 v_t 는 잔차항으로 0을 평균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Akaike's (AIC), Schwarz's (SIC), log-likelihood ratio (LR) 검정 등을 통해 위 회귀식의 m , n , q , 그리고 r 의 최적 시차를 정할 수 있다.

먼저 회귀식 (1), (2)에서 만약 H_A : 적어도 하나의 $\gamma_j \neq 0, j = 1, \dots, n$ 인 대립가설에 대해 귀무가설인 $H_0 : \gamma_1 = \gamma_2 = \dots = \gamma_n = 0$ 이 기각된다면 Y는 X를 Granger 인과한다($Y \rightarrow X$ 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식 (1), (2)에서 만약 H_A : 적어도 하나의 $c_j \neq 0, j = 1, \dots, r$ 인 대립가설에 대해 귀무가설인 $H_0 : c_1 = c_2 = \dots = c_n = 0$ 이 기각된다면 X는 Y를 Granger 인과한다($X \rightarrow Y$ 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회귀식 (3), (4)에서 만약 H_A : 적어도 하나의 $\gamma_j \neq 0, j = 1, \dots, n$ 인 대립가설에 대해 귀무가설인 $H_0 : \gamma_1 = \gamma_2 = \dots = \gamma_n = 0$ 이 기각된다면 ΔY 는 ΔX 를 Granger

인과한다($\Delta Y \rightarrow \Delta X$ 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식 (3), (4)에서 만약 H_A : 적어도 하나의 $c_j \neq 0, j=1, \dots, r$ 인 대립가설에 대해 귀무가설인 H_0 : $c_1 = c_2 = \dots = c_n = 0$ 이 기각된다면 ΔX 는 ΔY 를 Granger 인과한다($\Delta X \rightarrow \Delta Y$ 로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회귀식 (5), (6)에서 만약 H_A : 적어도 하나의 $\gamma_j \neq 0, j=1, \dots, n$ 인 대립가설에 대해 귀무가설인 H_0 : $\gamma_1 = \gamma_2 = \dots = \gamma_n = 0$ 이 기각된다면 ΔY 는 ΔX 를 Granger 인과한다($\Delta Y \rightarrow \Delta X$)라고 할 수 있다. 회귀식 (5), (6)에서 만약 H_A : 적어도 하나의 $c_j \neq 0, j=1, \dots, r$ 인 대립가설에 대해 귀무가설인 H_0 : $c_1 = c_2 = \dots = c_n = 0$ 이 기각된다면 ΔX 는 ΔY 를 Granger 인과한다($\Delta X \rightarrow \Delta Y$)라고 할 수 있다.

1. 3. 자료

인과관계의 검정을 위해 2000~2014년까지의 분기별 자료(2014년은 2/4분기까지)를 사용한다. GCC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원유가격의 경우 그 대표성 측면에서 두바이 산 원유수입가격을 사용한다. 경제변수로는 2000년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한 국민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 투자, 수출, 수입, 경상수지 등을 사용한다. 두바이산 원유가격 자료는 페트로넷에서 추출한다. 국민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 투자, 수출, 수입, 경상수지 등의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관세인하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이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및 충격반응분석을 위해 GDP, GNI, 소비, 투자, 수출, 수입은 로그를 취하여 변환한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한다.³⁾

3) 관련 시계열은 <부록>의 <그림 A1>~<그림 A9>을 참조.

<표 10> 분석 대상 자료요약

변수	데이터	분기자료	자료출처	비고
GCC 수입 원유가격	두바이산 원유가격	2000.1/4~ 2014.2/4	페트로넷	US 달러, 두바이산 원유 평균 가격
경제변수	GDP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십억 원, 실질, 원계열
	GNI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십억 원, 실질, 원계열
	소비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십억 원,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실질, 원계열
	투자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십억 원, 총자본형성, 실질, 원계열
	수출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십억 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실질, 원계열
	수입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십억 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실질, 원계열
	생산자물가 상승률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생산자물가지수 전분기 대비 증감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0.1/4~ 2014.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소비자물가지수 전분기 대비 증감율

페트로넷: www.petronet.co.kr, 한국은행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제 2절 검정 결과

2. 1. 안정성 및 공적분 검정

첫 번째 단계로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표 11>은 원유수입가격 및 경제변수들의 수준(level) 및 1차 차분(first differenced)된 시계열에 대한 각각의 ADF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수준 변수에서는 소비,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모든 시계열에 대해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1차 차분된 시계열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여기서 독립변수인 원유수입가격(OIL)은 수준변수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1차 차분된 시계열에 대해서는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다시 말해 원유수입가격(OIL)이 수준 변수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원유수입가격(OIL)과 각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Method I(두 변수가 수준변수에서 안정적이고 공적분되어 있을 때)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대신 1차 차분된 변수를 활용하는 Method II 및 Method III가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11> 시계열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

데이터	변수 표기	수준	1차 차분	비고
원유수입 가격	OIL	0.803	-6.930***	로그값으로 치환
GDP	GDP	-2.593	-3.945***	로그값으로 치환
GNI	GNI	-1.158	-4.149***	로그값으로 치환
소비	CONS	-3.901***	-4.300***	로그값으로 치환
투자	INVT	-1.321	-7.771***	로그값으로 치환
수출	EXP	-0.900	-5.766***	로그값으로 치환
수입	IMP	-1.025	-5.712***	로그값으로 치환
생산자물가 상승률	INFPPI	-5.495***	-9.039***	원자료(%) 사용
소비자물가 상승률	INFCPI	-3.310***	-11.233***	원자료(%) 사용

주: 유의수준 10%는 *, 5%는 **, 1%는 ***로 표시. Dickey-Fuller 검정에 필요한 적정 시차는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SIC)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 각 회귀식은 y절편은 포함, 시간추세는 제외.

두 번째 단계로 위의 ADF 단위근 검정 결과를 기초로 공적분 존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ohansen 최우도 검정(Maximum Likelihood Test)을 활용한다. 이 검정은 공적분 관계의 계수(rank)를 측정하고 검정하기 위한 정형화된 방법으로 벡터오차수정항을 포함한 벡터자귀회귀 모형의 한 방식이다. 우선 공적분의 계

수 r 을 정하기 위해 시계열에 대한 두 가지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적분 벡터의 계수 r_0 를 확인하기 위해 $r_0 = r$ 를 귀무가설로, $r_0 > r$ 를 대립가설로 하고 Eigenvalue 검정을 실시한다. 또 하나의 방법인 Trace 검정은 $r_0 \leq r$ 를 귀무가설로, $r_0 > r$ 를 대립가설로 한다.

<표 12>는 각 변수의 시계열에 대한 Johansen 최우도 검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원유수입가격(OIL)과 공적분되어 있는 변수로는 GDP, GNI, 소비(CONS), 투자(INVT), 생산자물가상승률(INFPPI), 소비자물가상승률(INFCPI)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경우 공적분 계수 및 존재 여부를 살펴보면 $r = 0$ 을 귀무가설로, $r \leq 1$ 를 대립가설로 할 때 적어도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원유수입가격(OIL) 및 GDP, GNI, 소비(CONS), 투자(INVT), 생산자물가상승률(INFPPI), 소비자물가상승률(INFCPI) 간에는 오직 하나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Method II 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IC 및 LR 검정을 통해 적정 시차는 2로 정한다. 아울러 잔차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설정한 벡터자기회귀 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원유수입가격(OIL)과 수출(EXP), 수입(IMP)의 경우 변수 간 공적분 계수 및 존재 여부에 관해서 Eigenvalue 검정과 Trace 검정을 통해 살펴보면 대립가설인 $r \leq 1$ 에 대해 $r = 0$ 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유수입가격(OIL)과 수출(EXP) 및 원유수입가격(OIL)과 수입(IMP)의 경우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 Method III 에서와 같이 1차 차분된 시계열을 이용한다. SIC 및 LR 검정을 통해 적정 시차는 2로 정한다. 마찬가지로 잔차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의 벡터자기회귀 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2> Johansen 공적분 검정

변수	공적분 계수	Eigenvalues	Trace 통계량	Maximum Eigenvalue 통계량
OIL & GDP	0	0.208	14.030* (15.495)	12.860* (14.265)
	≤ 1	0.021	1.671** (3.841)	1.171 (3.841)
OIL & GNI	0	0.219	14.346* (15.495)	13.564* (14.265)
	≤ 1	0.014	0.782 (3.841)	0.782 (3.841)
OIL & CONS	0	0.280	21.925*** (15.495)	19.454*** (14.265)
	≤ 1	0.044	2.470 (3.841)	2.470 (3.841)
OIL & INVT	0	0.221	15.690** (15.495)	13.690* (14.265)
	≤ 1	0.030	1.730 (3.841)	1.730 (3.841)
OIL & EXP	0	0.094	5.849 (15.495)	5.403 (14.265)
	≤ 1	0.008	0.446 (3.841)	0.446 (3.841)
OIL & IMP	0	0.081	5.396 (15.495)	4.669 (14.265)
	≤ 1	0.013	0.727 (3.841)	0.727 (3.841)
OIL & INFPPI	0	0.229	14.622* (15.495)	14.065* (14.265)
	≤ 1	0.010	0.559 (3.841)	0.559 (3.841)
OIL & INFCPI	0	0.379	15.495*** (15.495)	20.727*** (14.265)
	≤ 1	0.014	0.753 (3.841)	0.753 (3.841)

주: 유의수준 10%는 *, 5%는 **, 1%는*** 로 표시. ()안의 숫자는 5% 유의수준에서의 임계치. 시차 2를 포함. 시계열에는 추세가 존재하고 공적분 관계에서는 추세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표 13>은 위의 공적분 검정의 결과를 기초로 원유수입가격(OIL)과 각 경제 변수 간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적정성과 검정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4>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나타낸다. 원유수입가격(OIL)과 GDP, GNI, 소비(CONS), 투자(INVT), 수입(IMP), 소비자물가상승률(INFCPI)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원유수입가격(OIL) 및 GDP, GNI, 소비(CONS), 투자(INVT), 수입(IMP) 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기각하고, 원유수입가격(OIL)과 소비자물가상승률(INFCPI)의 경우 유의수준 10%에서 기

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경우 원유수입가격이 GDP, GNI, 소비(CONS), 투자 (INVT), 수입(IMP)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유 수입가격(OIL) 및 수출(EXP), 생산자물가상승률(INFPPI) 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표 13> 공적분 여부 및 인과관계 검정

변수	공적분 여부	인과관계 검정방법
OIL & GDP	Yes	Method II
OIL & GNI	Yes	Method II
OIL & CONS	Yes	Method II
OIL & INVT	Yes	Method II
OIL & EXP	No	Method III
OIL & IMP	No	Method III
OIL & PPI	Yes	Method II
OIL & CPI	Yes	Method II

<표 14> Granger 인과관계 검정

변수	인과관계검정방법	χ^2	p-value	인과관계여부
OIL → GDP	Method II	16.950	0.002	Yes
OIL → GNI	Method II	18.873	0.001	Yes
OIL → CONS	Method II	31.115	0.000	Yes
OIL → INVT	Method II	15.620	0.003	Yes
OIL → EXP	Method III	6.004	0.199	No
OIL → IMP	Method III	17.700	0.000	Yes
OIL → INFPPI	Method II	1.531	0.465	No
OIL → INFCPI	Method II	7.867	0.097	Yes

2. 3. 충격반응함수 분석

위에서 원유수입가격과 각 경제변수 간 인과관계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이 각 경제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 및 <그림3>~<그림17>은 원유수입가격이 1% 인상(impulse)될 경우 1~4분기 이후(누적 포함) 각 변수들이 보이는 충격반응(response)함수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준다. 이 결과를 보면 원유수입가격이 1% 인상될 경우 4분기 이후(누적) GDP, GNI, 소비가 각각 0.100%, 0.182%, 0.1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유수입가격의 인상이 비용 상승을 통해 생산 및 소비활동의 위축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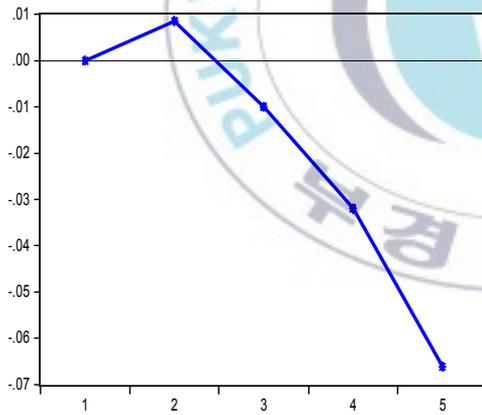
이와는 반대로 원유수입가격이 1% 인상(impulse)될 경우 투자, 수출, 수입,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후 0.286%, 0.193%, 0.160%, 3.05%p, 1.4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경우 1, 2분기에는 0.258%, 0.093% 증가하지만 3, 4분기에는 각각 0.065%, 0.070%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유수입가격의 상승이 생산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업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결정됨을 고려할 때 원유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 의사결정이 3분기 이후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침을 암시한다. 원유수입가격과 수출, 원유수입가격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간의 인과관계 가정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충격반응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격반응함수의 경우 원유수입가격의 인상은 수출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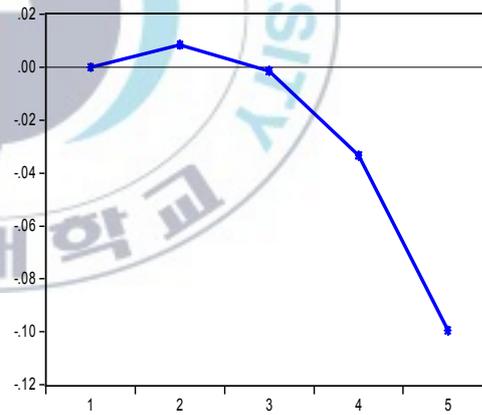
변수	1분기(3개월)	2분기(6개월)	3분기(9개월)	4분기(1년)	누적
GDP	0.009	-0.010	-0.032	-0.066	-0.100
GNI	-0.005	-0.053	-0.058	-0.066	-0.182
소비	0.000	-0.038	-0.044	-0.029	-0.111
투자	0.258	0.093	-0.065	-0.070	0.286
수출	0.103	0.078	0.007	0.005	0.193
수입	0.223	0.053	-0.063	-0.053	0.160
생산자물가 상승률	0.75	2.14	1.17	-1.09	3.05
소비자물가 상승률	0.93	-0.04	0.85	-0.34	1.40

주: GDP, GNI, 소비, 투자, 수출, 수입의 경우 %,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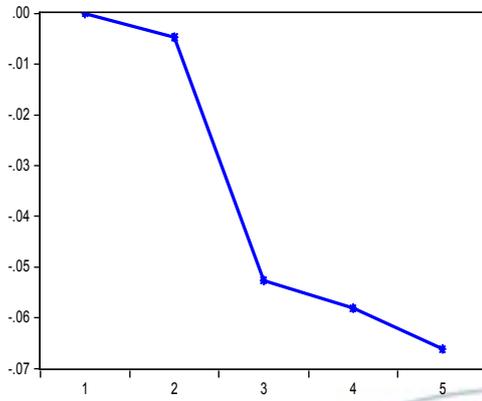
<그림 3> 충격반응(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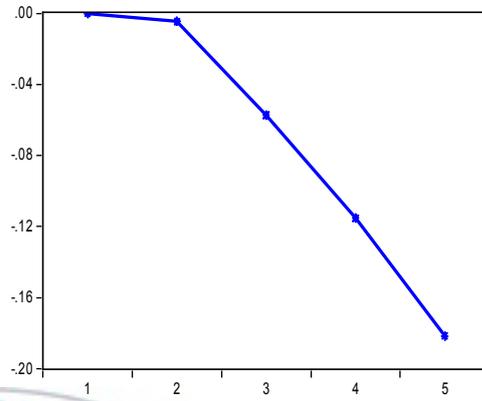
<그림 4> 누적충격반응(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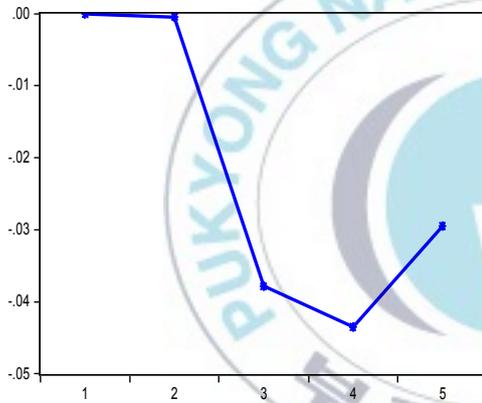
<그림 5> 충격반응(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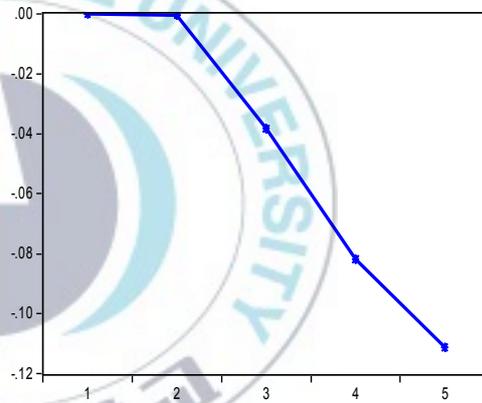
<그림 6> 누적충격반응(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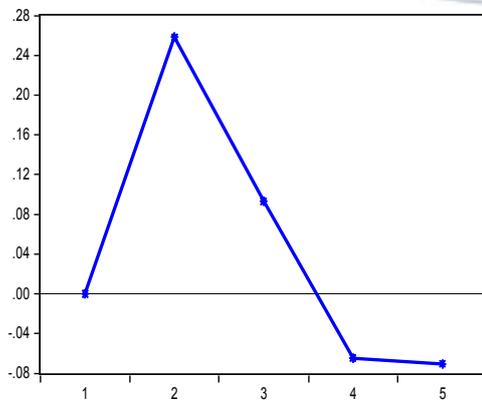
<그림 7> 충격반응(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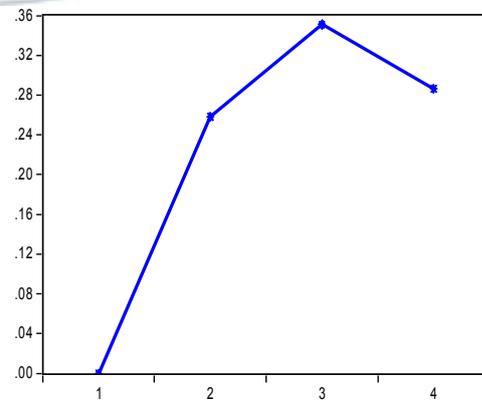
<그림 8> 누적충격반응(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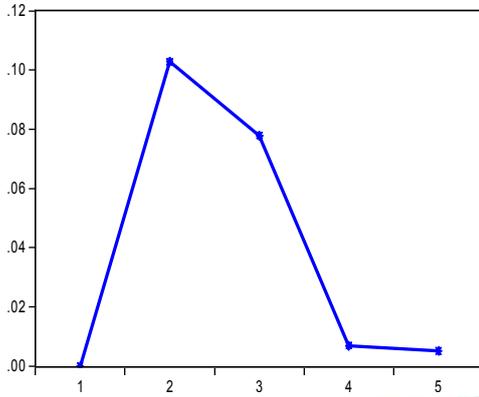
<그림 9> 충격반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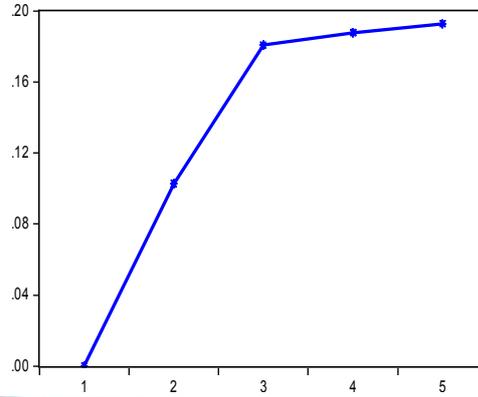
<그림 10> 누적충격반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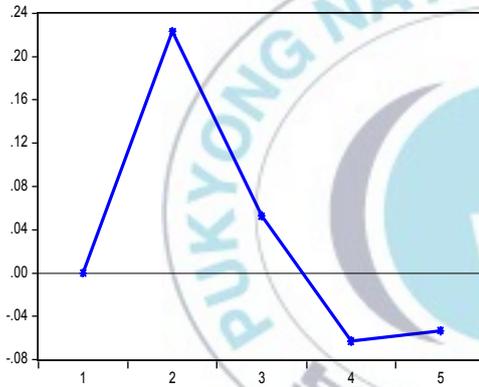
<그림 11> 충격반응(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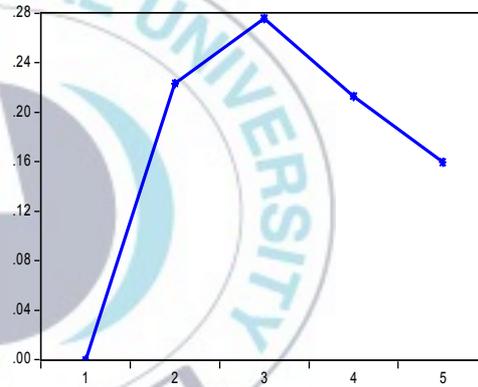
<그림 12> 누적충격반응(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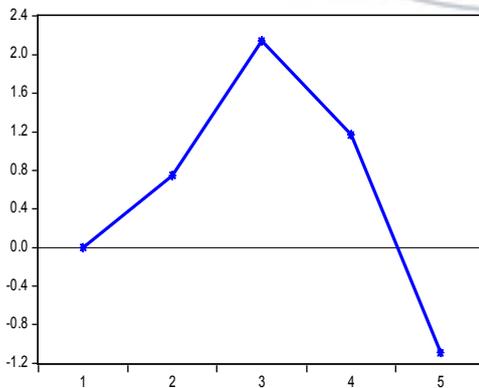
<그림 13> 충격반응(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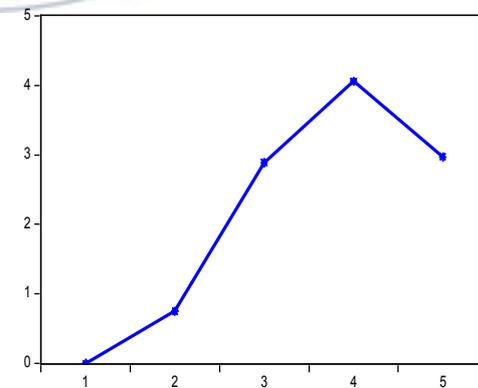
<그림 14> 누적충격반응(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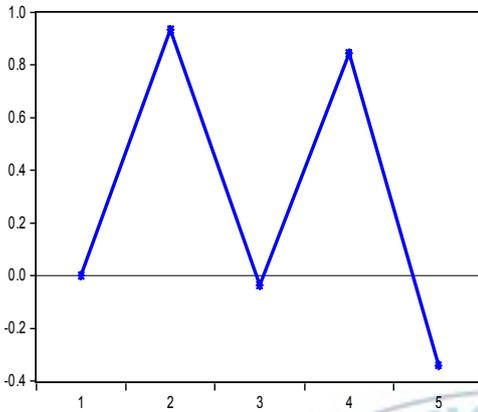
<그림 15> 충격반응(생산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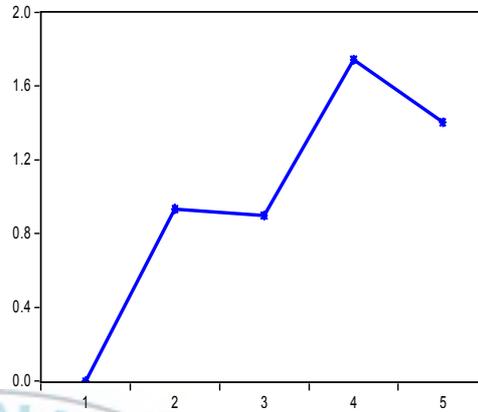
<그림 16> 누적충격반응(생산자물가)



<그림 17> 충격반응(소비자물가)



<그림 18> 누적충격반응(소비자물가)



위의 결과는 앞에서 보았듯이 원유수입가격이 1% 인상될 경우에 산출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 3%가 철폐될 경우를 상정하여 환산, 집계하게 되면 그 결과는 <표 16>와 같다.⁴⁾ 원유수입관세 철폐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GDP, GNI, 소비는 예상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년 후 GDP는 총 0.211%, GNI는 0.389%, 소비는 0.237%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3\%(\text{원유관세율}) \times 0.712\%(\text{2013년 총 원유 수입량 대비 GCC 원유 수입량 비중}) = 2.14$. 물론 원유수입가격의 인상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과 원유수입가격의 인하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은 단순한 비례관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석의 편의상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표 16> GCC 수입원유 관세철폐(원유 가격 2.14%인하 효과) 시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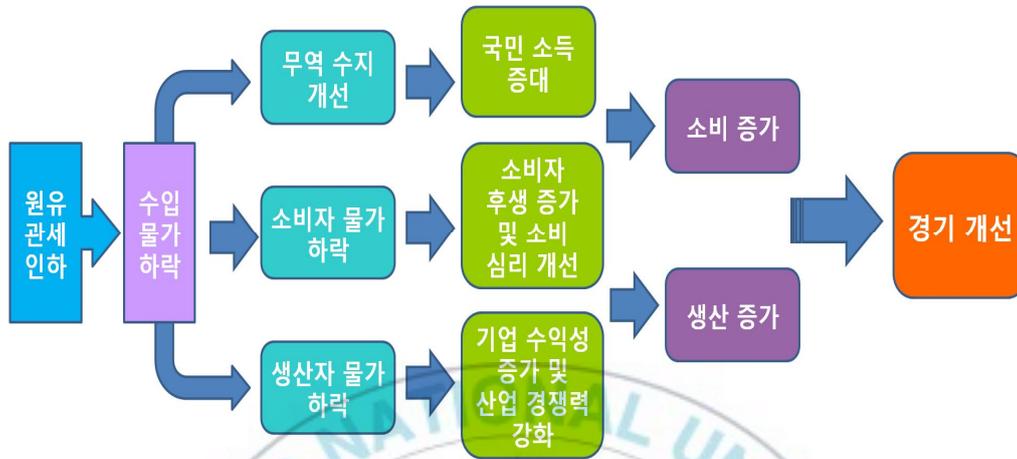
변수	1분기(3개월)	2분기(6개월)	3분기(9개월)	4분기(1년)	누적
GDP	-0.019	0.021	0.068	0.141	0.211
GNI	0.011	0.113	0.124	0.141	0.389
소비	0	0.081	0.094	0.062	0.237
투자	-0.552	-0.199	0.139	0.150	-0.462
수출	-0.220	-0.167	-0.015	-0.011	-0.413
수입	-0.477	-0.113	0.135	0.113	-0.342
생산자물가 상승률	-1.605	-4.580	-2.504	2.333	-6.356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0	0.086	-1.819	0.728	-2.995

주: GDP, GNI, 소비, 투자, 수출, 수입의 경우 %,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p.

관세가 철폐되게 되면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되며 소비 심리를 개선 시켜 소비가 증가되게 된다. 기업은 수입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 및 생산의 증가는 최종적으로는 경기를 개선시키게 됨으로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경기 침체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철폐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기 개선 효과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통하여 한-GCC FTA 조기 체결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9> 관세 철폐의 국내경기 파급 경로



자료: 정민, 한재진, 이부형(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V. 결 론

제 1절 연구요약

범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블록화가 급진전 되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까지 경쟁적으로 블록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평균 5% 이상의 고속 성장 중인 GCC 또한 1981년 결성된 이래에 역외 관세율 5%를 적용하고 공동 시장을 창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단일 화폐 제도를 바탕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원유 및 석유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산업다각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한-GCC 교역 규모는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의 5배가 넘는 전형적인 만성적자무역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만성적자무역을 탈피를 위한 전형적 소비 시장인 GCC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GCC와의 전략적 FTA의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CC의 경제 구조 및 교역현황을 살펴보고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원유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GCC FTA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한-GCC FTA의 조속한 체결과 관련 기업의 관계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호영향을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에서 2014년 2분기까지의 자료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시계열에 대한 안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원유수입가격과 경제변수들의 수준 및 1차 차분된 시계열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ADF 단위근 검정 결과를 기초로 공적분 존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Johansen 최우도 검정(Maximum

Likelihood Test)을 실시하여 벡터자기회귀 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앞의 두 검정의 결과를 기초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수출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충격반응함수로 분석한 연구 결과, 원유수입가격이 1% 인상될 경우 4분기 이후(누적) GDP, GNI, 소비가 각각 0.100%, 0.182%, 0.1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유수입가격의 인상이 비용 상승을 통해 생산 및 소비활동의 위축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투자, 수출, 수입,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후 0.286%, 0.193%, 0.160%, 3.05%p, 1.4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경우 1, 2분기에는 0.258%, 0.093% 증가하지만 3, 4분기에는 각각 0.065%, 0.070%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결정됨을 고려할 때 원유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 의사결정이 3분기 이후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침을 암시한다.

이를 근거로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 3%가 철폐될 경우를 상정하여 환산, 집계하게 되면 1년 후 GDP는 총 0.211%, GNI는 0.389%, 소비는 0.237%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원유 관세 철폐에 따라 파급 효과로 국내 경기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국민 소득이 증대되며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 심리를 개선 시켜 소비가 증가되게 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입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을 증가하게 된다. 소비 및 생산의 증가는 최종적으로는 경기를 개선시키게 됨으로써 국내 경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의 약 70%를 GCC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상 제조업에 산업 기반을 두고 있어 수출이 증가할수록 원유 수입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명제이며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볼 때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의 GCC의 향후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략적 산업 협력을 위하여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자원 수입지역의 다변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재와 같이 건설 등 특수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GCC의 관계에서 벗어나 양국의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개발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FTA 협력 방안을 통하여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한-GCC FTA의 체결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원유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한-GCC FTA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3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GCC FTA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이 연구가 한-GCC FTA의 체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GCC와의 산업 협력을 앞둔 기업 및 관계들에게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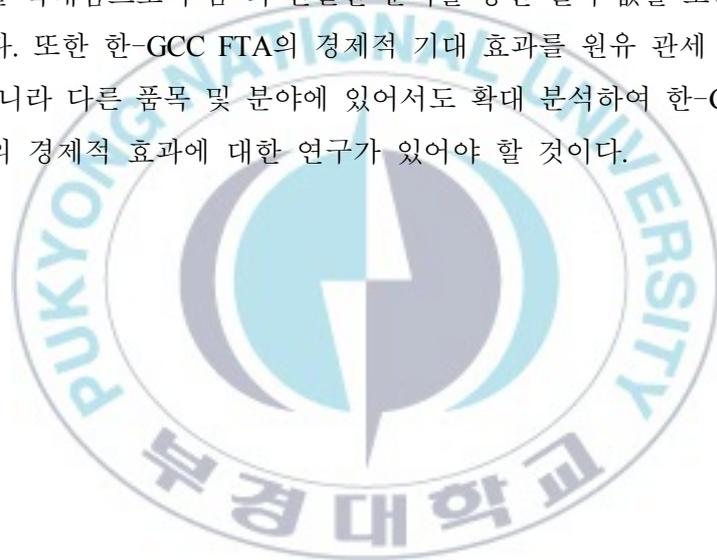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GCC FTA를 통한 원유 관세 철폐 시 기대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하여 4분기(1년)간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FTA의 경우 체결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적 영향이 다를 수 있어 4분기 분석 결과값의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2000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의 원유가격 및 거시경제의 변화를 사용

하여 결과치를 얻었다. 그러나 벡터회귀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표본의 수나 순서에 의하여 결과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본 연구 결과를 값을 절대화시키기에는 표본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GCC FTA를 통한 원유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다른 품목에 있어서 국내 경제에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한-GCC FTA 체결의 전체적 효과로 확대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 따른 향후 연구의 방향으로는 한-GCC FTA 체결 시 기대되는 경제 효과에 대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표본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한 결과 값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원유 관세 철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및 분야에 있어서도 확대 분석하여 한-GCC FTA 체결의 전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1981년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가 결성한 역내 협력기구로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 구축과 함께 대외 취약적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성 되었다. GCC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평균 5%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잠재율을 가진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원유 및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 높아 산업다각화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말 기준 한-GCC 총 교역 규모는 2002년 222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235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경제권별 무역 규모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對GCC 수출 품목은 제조업의 비중이 크며 수입 품목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수입이 수출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많은 만성적자무역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산업다각화 추진 정책 참여를 위하여 GCC와의 전략적 FTA 추진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GCC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FTA를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GCC FTA 체결을 앞두고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GDP는 총 0.211%, GNI는 0.389%, 소비는 0.237%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한-GCC FTA를 앞두고 GCC와의 산업 협력을 위하여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GCC FTA 체결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향

후 대규모 소비 시장으로서 GCC의 성장 잠재성과 한국과의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며,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를 총 4분기로 하여 결과값을 산출함으로써 관세 철폐 시 일어나는 거시경제지수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의 특성상 분석 표본의 수 및 순서에 따라서도 결과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연구 과제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더 확장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결과값을 산출하여 면밀한 분석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및 한-GCC FTA의 통한 총체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중관(2010), 『GCC 체제 하의 걸프지역 국가의 경제협력』, 한국중동학회논문총 30권 2호 pp.53-77, 한국중동학회.
- 김창모(2007), 『GCC회원국의 현황과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7권 3호 pp.37-57,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김태황(2013), 『이슬람국가와의 경제협력활성화 전략 : GCC와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EU학 연구 18권 2호, 한국EU학회.
- 박복영(2004), 『中國, 석유확보 위해 中東 진출 본격화 : 중국-GCC 간 FTA 추진 합의』, 오늘의 세계경제 제 04권 16호, 대외정책연구원.
- 박복영, 황주성, 박철영(2006),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06-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복영, 박철형(2007),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동향과 평가』, KIEP 지역 경제 포커스, Vol.1 No.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영민(2007), 『GCC(걸프협력회의)의 경제정책변화에 따른 오일머니 환류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배희연(2004), 『걸프지역의 경제통합 및 역외 FTA 추진 동향』, 월간세계경제 2004년 10월호, pp.93-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2008), 『한-GCC FTA 제1차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2009), 『한-GCC FTA 제2차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 _____ (2009), 『한-GCC FTA 제3차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 외교부(2014) 『윤병세 장관, UN총회 계기 한-GCC 외교장관 회담 개최 및 한-GCC 전략협력 양해각서 체결』, 외교부.
- 정민, 한재진, 이부형(2014)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주평 14-41(통권 612호). 현대경제연구원.
- 주동주, 김계환, 민혁기, 민영진, 빙현지(2012), 『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정책자료 2012-160, 산업연구원.
- 주동주, 김학기, 이진면(2006), 『고유가시대의 대중동 산업협력전략-FTA와 플랜트 수출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2006-37, 산업연구원.
- 주원, 안중기(2012), 『수출시장으로서의 GCC 재조명-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 ③ GCC(걸프협력회의)』, 이슈리포트 12-60, 현대경제연구원.
- 혁동(2012), 『한·GCC FTA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황주성(2006), 『FTA 정책을 둘러싼 GCC 내부의 갈등과 최근 동향』. 월간세계경제 2006년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GCC 국가의 경제 및 상업은행 특징』, KB경영정보리포트 2012-09호, KB금융지주.

2. 국외문헌

- Dickey, D.A. and Fuller, W.A.(1981), "Likelihood ratio statistic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Econometrica*, Vol.49 (4), pp.1057-1072.
- Engle, R.F. and Granger, C.W.J.(1987), "Co-integration and error-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Vol.55 (2), pp.251-276.
- Granger, C. W. J.(1969),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Vol.37, pp.424-438.
- _____ (1980), "Testing for causality: A personal viewpoint,"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2, pp.329-352.
- Ghosh, S.(2006), "Steel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India", *Resources Policy* Vol.31(1), pp.7-11.

Johansen, S.(1988),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12, pp.231-254.

_____ (1991),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of cointegrating vectors in Gaussian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Econometrics, Vol.59 (6), pp.1551-1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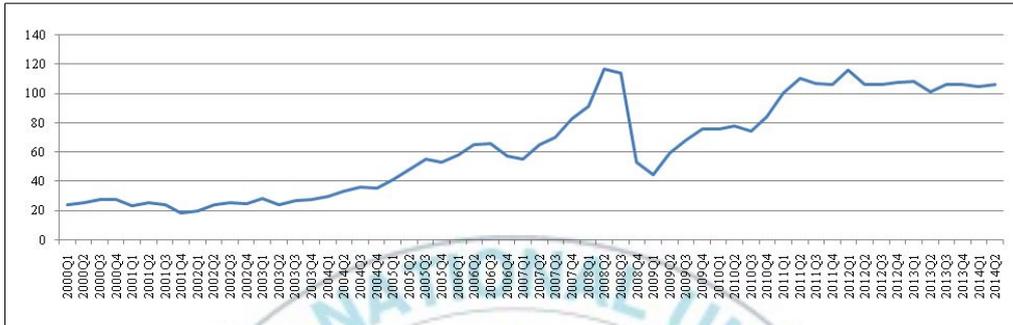
Johansen, S. and Juselius, K.(199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 with application to money deman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52 (2), pp.169-210.



<부 록>

<그림 A1> 두바이산 원유 가격

(U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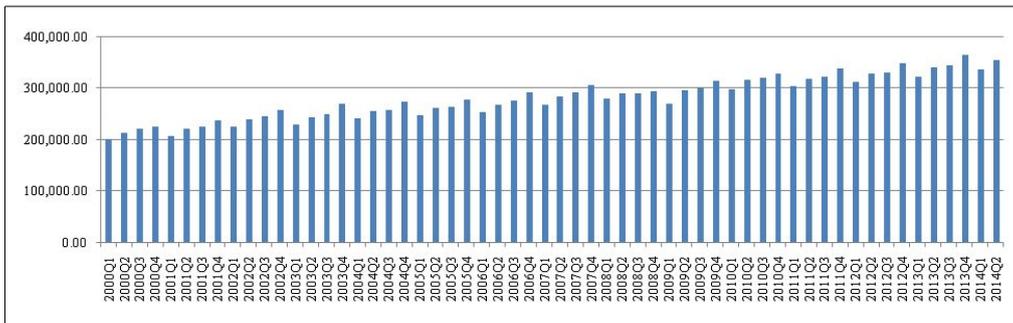
<그림 A2> GDP

(십억 원, 실질, 원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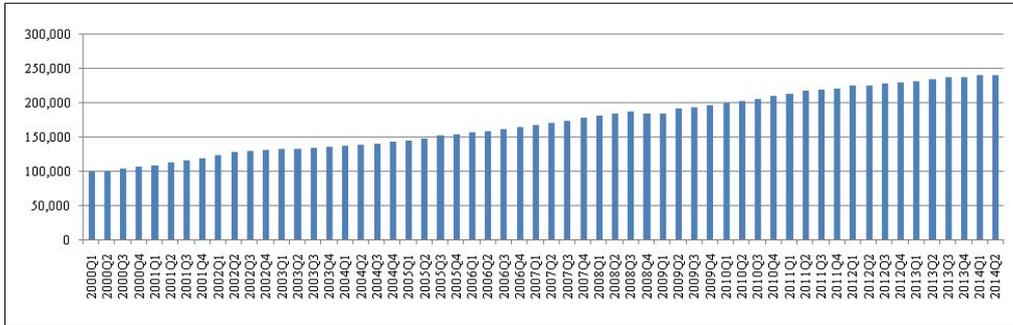
<그림 A3> GNI

(십억 원, 실질, 원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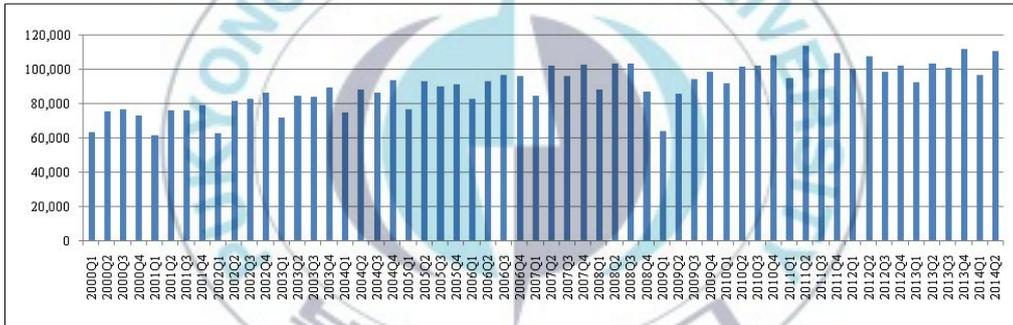
<그림 A4>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십억 원, 실질, 원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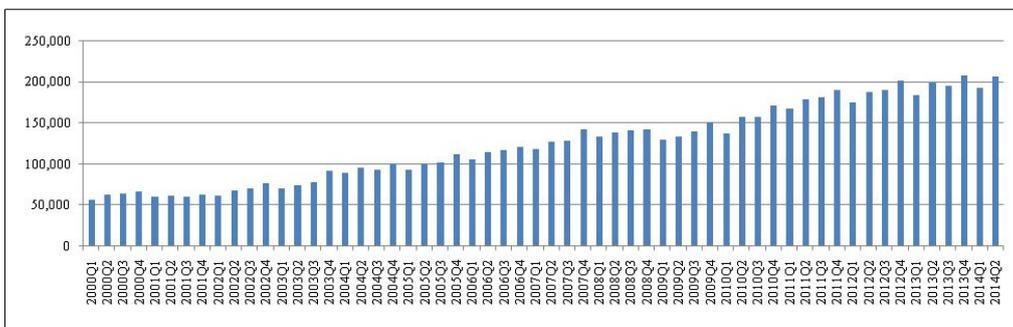
<그림 A5> 총자본형성

(십억 원, 실질, 원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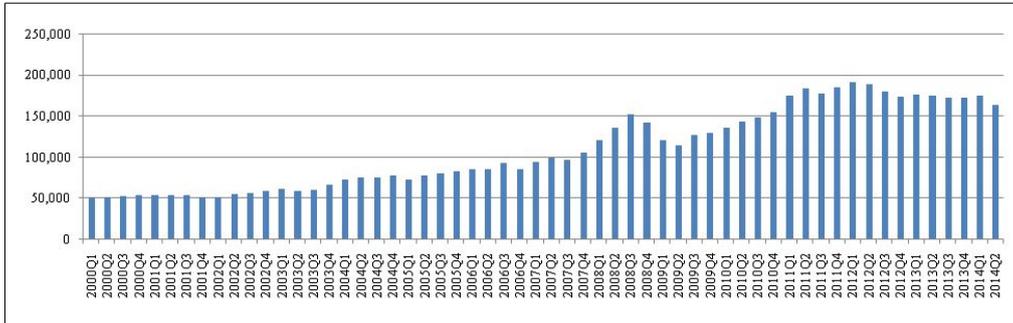
<그림 A6>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십억 원, 실질, 원계열)



<그림 A7>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십억 원, 실질, 원계열)



<그림 A8> 생산자물가 상승률

(%, 전분기 대비 증감율)



<그림 A9>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분기 대비 증감율)

